

자신의 집을 빈집으로 만들지 말라

25면에서 계속

아닌지도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속에 바로 수박 씨가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기, 과거 자기를 찾느라고, 자기 씨를 찾느라고 온통 바깥으로 헤매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수박 자체는 자기 안에 자기 씨가 있으니, 과거 씨가 자기 안에 있으니 자기 안에 있는 그 씨가 자연의 불성이라고 한다면 진짜 믿어라 이겁니다.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수박 겉과 안에 살고 씨와 같이 한꺼번에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정되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옵니다. 과거 씨를 현재에 심고 현재의 씨를 미래에 심고 이렇게 하면서, 과거도 오 늘이요 미래도 오늘이요 오늘도 공(空)했노라.

오늘도 고정됨이 없죠? 여러분! 고정된 게 있습니까? 만남도 여러분이 아내를 만날 때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남편이 되고, 부모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자동적으로 바로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만났을 때는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여하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시면서 자동적으로 사시는 그 자체를 모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살림 속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연구하고 실험하시고 그리고 체험하신다면 부처님의 그 뜻을, 골수를 아신다 이 소립니다. 부처님의 삶을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의 골수를 믿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고깃덩어리를 믿으려 다닙니까? 고깃덩어리는 사대가 흩어지면 그뿐입니다. 누구누가 다, 부처님께서는 "나의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라. 네 자신을 알면 내 자신과도 돌아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인공을 들고 한 팔을 번쩍 쳐들었을 때, 가슴이 싱긋이 웃었을 때 어떤 경과 있었을까요. 그 이심전심(以心傳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마음이었습니다. '모습을 보지 말라.' 하시고선 연꽃을 들고 여러 대중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한 생명이며 한 자리이며 한 법이고, 바로 우리는 그 속에서 두 자리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두 마음이 아니다. 수억겁을 거치면서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달 없이 전달이 되면서 같이 공생·공용·공체·공식화 하고 살고 있느니라.' 하는 그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 다보탑(다보탑, 多子塔)에 반 자리를 내 주셨을까요? 한마음에서 바로 모두가 돌아 아니라는 뜻을 가르치고 두 자리가 아니라는 뜻을 가르친 겁니다. 간단하게 비유해서, 아무리 부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대로만 고집해서, 지금 시대가 변했는 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하신 그 용어 그대로 써야겠습니까? 부처님의 뜻을 받 들어서 지금 현재에 살아가는 용어(용어)가 바뀌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여기에 감화가 된다면 그것 바로 진짜 부처님을 숭상하는 일이고 진짜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신 그 뜨거운, 뼈저린 그

피 한 방울을 알 것입니다.

두 다리를 축 내민 거는 무엇입니까. 한도량 안에 한발이 되는 뜻입니다. 한발! 한발! 여러분이 이렇게 수많은 발들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게 한 발, 한발, 평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자리가 돼서 밟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 한발입니다. '너희들과 나와 한발 평등하니라.' 하고 평발이라고 했습니다. 발이 평발이라서가 아니라 세상이 모두가 평등하고 여러분이 같이 한발로서 한마음으로서 한 행동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밝히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디서 왔나.' 하고 있다면, '이건 뭣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으며, 또 자기 자신이 일체 만법을 들고 낸다는 것을 증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부처님도 그러셨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묘법을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을, 500년 후에는 어떻게 이 뜻을 증생들이 알 수 있었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선 "500년 후에도 지금과 더불어 똑같이 그 뜻을 반영하고 그대로 알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길을 걸을 것이니라. 조금도 다르지 않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뜻을 생각해 볼 때, 말로만 이론으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뜻을 볼 때는 삼천 년 전이나 오백 년 후나, 후도 없고 전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계신 이상 부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부처 아닌 게 부처이지 부처라 하면 부처가 아닙니다. 화두를 들었다 하면 벌써 그건 안 든 겁니다. 내가 좌선을 한다 그러고 앉았으면 좌선이 아닙니다. 일어나면 벌써 생각부러 하고, '밥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부터 하고 '일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부터 하고 '똥 뉘야겠다' 하는 생각부터 하니 그 선은 항상 도무늬가 되는 거죠.

회양 선사가 마조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고 하도 미약해서 머리가 돌아가질 않으니 하루는 기왓장을 가지고 그 앞에서, 좌선하는 앞에서 걸었습니다. 가만히 좌선하면서 내려다보니까 엉뚱하게 선사가 기왓장을 걸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하시려고 그렇게 가십니까?" "나는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느니라."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아시는 말씀은 지금 내가 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마조 스님은, 저런 무슨 일일까요 하고 "그래, 그것이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할 양으로 그렇게 앉았느냐?" 하니깐 부처를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놈아, 일어나지도 말고 똥도 누지

말고 먹지도 말고 오줌도 누지 말고 일어나지 말아야 선맥이 끊어지지 않지, 일어나면 선맥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니깐 그때서야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난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다 우리한테는 거름입니다. 거름!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현실의, 지금 이 자리의 거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놓으려면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을 내놓으리니까 아무 소리 없이 그 앞에 있던 목탁을 탁 치고선 나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동당 서당에서 네 고양이 내 고양이 하고 싸우니까 한마디 하라고 그랬는데, 한마디 못하니깐 고양이 모가지를 딱 찢죠. 나중에 저녀에 들어오신 스님한테 그 말씀을 여쭙니까 아무 소리 없이 짚신을 벗어서 머리 위에 고이선 그냥 슬그머니 나가버립니다. 그 뜻이 됩니까?

여러분 마음은 제가 없습니다. 제가 없어서 이 지구 바깥을 나갈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

모르니까 예수만 믿으리라고 한데로 모은 거죠. 그게 생각해 보세요. 글썽. '모두 나부터 알고 나부터 믿어라.' 이러니까 편집자들이 잘못된 거죠. 그 길을 걸어 보고 그 속을 알아 봐야 알지 자기가 그 속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걸 표현을 합니까. 그러니까 물질세계에서만 살았으니 표현을 하기를 그럴 수밖에. '예수만 믿으리' 이렇게 썼던 거죠. 하하하... 내가 생각할 땐 그렇게 잘못했을 거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고도 '아이구, 이거는 참 죽을 꿈이고 이거는 안 되는 꿈이야. 또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런 꿈이 꿰지나?' 요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무꾸릴 하고선 '아이구, 새 달엔 언짢데. 석 달 있으면 뭐가 재앙이 온데.' 요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안의 모든 의식들이 그렇게 따라 주는 겁니다. 따라 주니 그 재앙이 안 오고 배길 수가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의식 자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배인이 돼야 됩니다. 한생각이면 한마음으로 따라 주는... 생각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잘 못 꾸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지니는 꿈을 잘 못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의식 자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배인이 돼야 됩니다. 한생각이면 한마음으로 따라 주는... 생각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잘 못 꾸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지니는 꿈을 잘 못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니까? 그건 여러분의 습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더라. 그렇게 꿈을 꾸면 나쁘다더라.' 요런 생각에서 오는 관습입니다. 이성계가 꿈 안 좋게 꾸었는데도 무하 대사가 그렇게 대답을 잘했지 않습니까? 왜냐? 그게 진리니까. 색경이 와르르 깨졌다 하니깐 "좋은 소식, 국민이 전부 다 소리를 높여줬구나! 좋은 꿈이로다." "스님! 꽃이 폼다 와르르 다 폼습니다." "야! 꽃이 다 폼으니 열매가 맺히겠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 한마디 대답이. "아휴, 스님! 까마귀가 그냥 까웁까웁하고 울고 가는 거를 또 보았습니다." "아이구, 참 좋겠구나! 가웁가웁 이니까 지금 시냇가로 말해서 청와대에 들어갈 꿈이로구나!" (대중 웃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데 스님, 더 들어 보십시오. 우리 집 때문에, 그 들어가는 때문에 허수아비를 목을 졸라서 딱 매 놓고는 뒤뚱뒤뚱하는데 그림 그걸 얼마나 흥한 꿈입니까?" 하니깐 "그런 말 말게. 만인이 다 우리러보는 꿈일세." 이랬거든요. 안팎이 우리러 본다고 했어, 나오며 들어가며, 허, 이렇게 좋은 그 꿈, 꿈이 됩니까!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에 조금도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이익한 생각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얘기할까요?

어떤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 친구가 꿈을 꾸었죠. 예전에도 내가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스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어저께 밤 꿈에 소쿠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야, 오늘 초대를 받아서 잘 먹겠구나. 그저 나쁜 게는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부터 사람이 돼야 되느니라." 하시고선 대답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옆에서 친구가 들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날 누가 초대를 해서 자기도 따라가서 무척 잘 먹었거든요. '나도 한번 스님한테 그렇게 해야겠다.' 하곤 꿈도 안 꿰는데 며칠 후에 가서 "저도 꿈을 꿴데 소쿠리를 얻었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스님이 있다 하는 소리가 "야! 조심해라. 나가면 물매를 맞을 꿈이로다." 이랬단 말입니다. (대중 웃음)

꼭같이 소쿠리를 얻었다는데 글썽 그렇게 말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저지르고 누가 물매를 맞게 됐습니까? 그건 왜냐? 꿈도 안 꾸고 스님을 우뚝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 그래 매를 맞고 사흘을 일어나질 못하다가 나흘 되던 날 너무 공금했습니다. '꿈도 안 꾸고 가서 그랬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가서 말을 했죠. "스님, 제가 사실은 꿈도 안 꾸고 스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물매를 맞게 됐습니까?" 하니깐 "이놈아! 네가 생각을 해낸 것도, 간교스럽게 생각해 놓은 것도 꿈이다. 그것도 꿈이지 꿈이 아닐 수가 있느냐. 그러니 너무 간교한, 어처구니없는 꿈을 숭상했기 때문에 네가 해 놓고 내가 맞았느니라." 이러더라고요. 소쿠리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문제였죠. 그러니 그 버릇을 그렇게 똑똑히 가르쳐 놓으십시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빼놓고는 절대로 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49년 설하면서 나오셨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신 거지 육신의 병을 고쳐 주고 육신의 뉘를 해 주기 위해서 나오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 한 가지만 있다면 모든 걸 사고 모든 걸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얘깁니다. 마음 하나만 고쳐 주면 일체 모든 게 자기 거 아님 없어요.

그러니 부처님께선 마음 병만 고쳐 주면, 한 가지만 고쳐 주면 다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 테니까 마음 병을 고쳐 주러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아주 그걸 진실하게 믿고 그렇게 한 구멍에다가 뚫다가 한 구멍에서 나오는 그 도리를, 우리는 부처님 도량의 그 정신, 손바닥 속에서 지금 해매고 있는데, 이 손바닥 속에서 해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겠다 하시고선 정진을 해야 할 텐데 이거는 자기가 자기인 거예요. 자기 아는 범위 내의 그릇이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4월 28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의식 자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배인이 돼야 됩니다

러분 가정에 다녀오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없기 때문에 원자에서도 일자가 그렇게 많이 있고 이 허공에도 지금 꼭 짝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 해서 비행기를 띄우려고 그러는데 양쪽에 통이 터져서 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 보니까 이 허공 안에도 그냥 생명들이 꼭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뜨면 강하리만 부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터지니까 슬그머니 해서 이렇게 뜨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연구해 낸 거죠.

정신세계에서 뜨는 비행기는 무엇일까. 앞으로는 마음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다가 하던 것을 마음으로, 지금은 단추만 누르면 돌아가는 그런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컴퓨터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없다면, 여러분의 불성이 없다면 어떻게 그걸 연구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어디로 갔든지 우리 생활부터 알아야 하고 나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바로 이게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기 무전전화기를 놓지 않고 어떻게 무전을 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무전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나부터, 각자.

예수도 말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부터 믿어라." 했는데 쓰는 사람들이 그 도리를

공념학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 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념학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영남범음범패 학인모집

자 격
승려 및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모든 재가불자

교육기간
전문반 1년 / 속성반 6개월

과 목
범 패 : 거불, 복청계, 가영, 향수니열, 도랑계, 다계작법

작법무 :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다라니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5시까지 (4시간)

강 사 진
영남범음범패(무형문화재 제9호) 이수자
• 교육원장 : 우암 스님
• 승무단장 : 성애 법사

교육장소
해동성취사 -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3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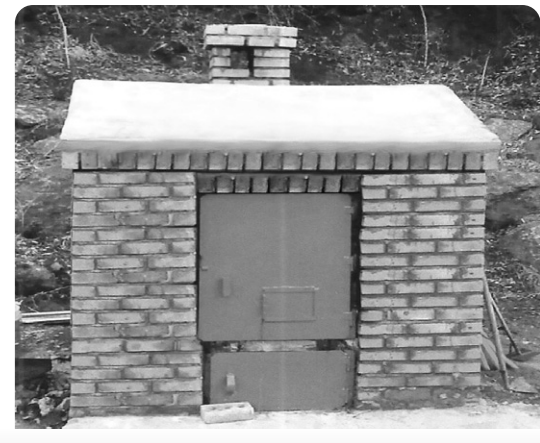
문 의
☎ 051)727-0859, 0809 / 010-3004-0859

그을음 없는 소각장과 구들장 없는 황토 온돌방 개발

소각장의 매연으로 불편하십니까?
항상 신경 쓰이는 그을음!!
그을음을 해소 하고 연소시켜 그을음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소각장!!

- ◆반 영구적인 화연대.
- ◆가로 1200mm X 세로 1300mm의 부지만 있으면 설치가능.
- ◆내부에 황토로 마무리 작업을 하므로 불의 열기에 의하여 내부가 튀지(깨어지지) 않는다.
- ◆사찰 및 공장, 도심속의 포교원 및 일반 가정집의 필수 요건.
- ◆8년의 수행 생활 속에서 온돌 방의 단점을 보완한 구들장 없는 황토 온돌방!!

환경 오염과 에너지 절감을 생각하는 마음과 매연가스가 일체 없는 황토 온돌방 : 한번 지면 불로 24시간 열 유지. (스님의 수행 및 신앙에 꼭 필요한 온돌방)



산청군 시천면 공덕암
문의전화 055)972-0338, HP 011-895-2258